

이유도 없이 왜...?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랴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 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밋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겨리와 암나귀 일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케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일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개역, 욥기 42:1~17]

근 20년 전 일입니다만, 중학교 1학년인 어느 여학생하고 즐기게 싸웠습니다. 한 1년쯤 싸우다가 부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어느 날 예쁘다고 한 대 쥐어 박았더니 애가 “이유도 없이 왜 때려요?” 한 거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난 “이유 없이 때릴 수 있다.” 하고, 개는 “이유 없이 때릴 수 없다.”면서 싸운 거죠. 싸우다가 일이 있으면 일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나면 “선생님, 또 합시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설날에 세배한다고 한복을 예쁘게 입고 왔어요. ‘일단 세배는 하고...’ 그러더니 세배하고 일어서서 치마를 훌쩍 걷는데 보니까 안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소위 전투복입니다. “인사는 했습니다.” 하고 딱 주저 앉더니 “이유 없이 왜 때려요?” 하는 겁니다. 한 1년 동안 틈만나면 그렇게 싸웠죠. 그 때마다 그 녀석이 한 대씩 맞았으니까 많이 맞았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끝에 가서 말씀 드리죠.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때 그 아이 생각이 나요. ‘이유 없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고난 당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정말 욥은 이유 없이 고난 받은 사람입니까?

경건한 부자

욥은 우스 땅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1절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입니다. 양이 칠천이고, 약대가 삼천이고..., 소가 몇 마리입니까? 오백 겨리라는데 한 겨리는 두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천 마리, 암 나귀가 오백입니다. 이것을 현 시가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한 말이 3절 끝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저 욥을 보았느냐?”고 하신 것은 욥에 대한 자랑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더니 사탄이 시기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욥에게 재난을 가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이 고난이 어찌나 심했던지 친구 세 사람이 위문차 왔다가 7일 동안 주야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혔다는 것이죠.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뭐 다른 좋은 답이 있습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예요? 인내하시는 분요? 엄청난 고

통을 당하면서도 인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안돼요? 경건한 사람,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도 아주 귀하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더 귀한 것이 최고의 부자이면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경건한 사람은 더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자면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마 가난하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 부자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더 귀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부해지면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야단 맞았거나 벌받았던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바라기는 효자제일교회 성도들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부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적을 때 십일조를 잘 하다가, 소득이 많아지면 십일조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아지면 십일조 하기가 더 쉬워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교회에 나오셔서 뒷정리 하신 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강단과 교회의 뒷벽을 철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임시로 뒷벽을 세우고 강단을 다시 설치하여 본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는 또 철거해야 될 일인데 예삿일이 아닙니다. 커튼까지 다 달아놓은 것을 보고 '효자제일교회의 일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김해까지 문상에 동행하고 싶었지만, 어제 밤 10시에 '목사님, 아무래도 기후가 너무 나쁜데 전도사가 둘이나 있으니 한 사람은 남아야겠습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갔다가, 예배시간 전까지 다 돌아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남았는데 괜히 걱정하고 남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서 다녀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작은 교회니까 그런 단결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조그만 할 때 힘을 내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가면서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해서 뒤로 물러나는 교인들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부자면서 더 경건한 욥처럼,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단결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 길을 다녀오면서 늦지 않게 오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힘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은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욥

또 한 가지는,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긴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했겠습니까? 효자제일교회 누구 누구, 이러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칩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 왔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 왔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폭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폭풍, 하늘의 불에 대한 원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지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욥은 나타나는 현상 하나 하나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옆의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 사람을 향합니다. '저 덜 된 인간이...' 하기 쉽죠?

욥은 그 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좋은 예가 성경에 많이 있죠. 다윗이 도망갈 때 시바가 억울하게 욕을 막 퍼붓습니다. 옆에 있던 장수들이 "한 칼에 죽여 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와두라"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시바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니 와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그 어떤 인물보다 그 인물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졌던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지난 IMF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그때 누구 욕을 많이 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IMF가 왔다고 욕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그 좀 전에 포항에 있다가 영덕 쪽으로 전근을 가면서 집을 팔고 갔습니다. 몇 년 뒤에 내려오니, 집 판 돈이 전세 값도 안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뛰어서, 이 친구는 입만 열면 XX재끼 욥을 했거든요. 그 XX가 누구겠어요? 당시 대통령 이름을 들먹이며 욥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 하나에 신경 쓰고 있지만, 욥은 그 현상 너머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나타나는 현상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뎌 굴뚝에 연기가?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끝없는 논쟁을 벌입니다. 이 논쟁의 얘기가 굉장히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세상 일에 원인이 없는 게 없다. 네가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 개만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8장 11절도 봅시다.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뭇잎이 갈대 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왕골은 반드시 진펄에서만 난다는 얘깁니다.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 세 친구의 주장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친구들 말이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맞다고 합니까? 이걸 욥기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욥의 답변도 맞다고 합니다. “자네들 말이 다 맞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말에 꼬투리를 물고 들어오죠. “너 말이야 얼마나 건방지냐? 하나님 앞에서 죄지은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 분명히 죄가 아주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논쟁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병들고 아픈 사람을 위문하러 가서 “틀림없이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런고 하니 세 친구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용을 잘 모른 채 함부로 그런 말을 했으니 책망을 받아 마땅할지 모르죠.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친구들과 욥의 끝없는 논쟁은 욥기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욥도 그들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난 그렇게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내 고민이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끝도 없는 논쟁이죠. 그 논쟁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38장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네게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할 수 있겠거든 대답해 보라면서 100% 주관식으로만 문제를 냅니다. 문제가 몇 개일까 하고 헤아리다가 포기했습니다. 워낙 많아서요. 욥이 몇 개쯤 맞혔을 거 같습니까? 빵점입니다. 하나도 못 맞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쉬운 질문이 나오니까.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우주, 이 땅을 만들 때에 “너 어디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그 다음 질문은 조금 고쳐보면 누가 이 땅의 크기를 정했으며 이 땅을 누가 줄로 재어 보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질문이 너무 엄청난 거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면 ‘바닷물이 태에서 온 것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욥이 잘 모를 때에 아무 것이나 찍는 실력이 조금만 있었으면 ‘하나님’이라 하면 좀 맞출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 문제의 답을 잘 모르면 단답형인 경우에는 1 아니면 0! 그것도 아니면 -1로 찍으면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어도 단어를 딱 하나 넣어야 한다면 확률이 제일 높은 게 *that*이나, *which*입니다. 성경 문제에서 답을 잘 모르겠거든 무조건 ‘하나님’ 하면 어지간히 맞습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 하면 상당히 많이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질문을 하나님께서 퍼붓고 계시니까 욥이 완전히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할 생각을 않는 겁니다. 완전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38장 35절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번개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를 우선 보낼 수 있겠느냐고 묻고, 그 번개가 저기 가서 너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욥이 생각할 때 도무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 질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번개가 전기적인 현상이라는 걸 증명해 낸 사람이 누구죠? 비바람이 몹시 치던 날 연 띄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몹시 불던 날 천둥이 전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형 연에 금속선을 달아서 띄울 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죽게 된다고요. 누굽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언제 사람인데요? 지금으로부터 기껏해야 300년도 채 안되는 때의 사람입니다. 천둥이나 번개가 전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한 게 지금으로부터 300년도 채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전파가 발견되고 지금은 전파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소식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언제 하셨습니까? 적어도 삼천 내지 사천년 전에 기록된 문서에 이런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욥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38장 14절,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천 것 같고 된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성경이 지구의 자전을 말한다는 표현으로 인용되었던 구절입니다. 옛날 도장은 진흙 판에 도르륵 굴리는 겁니다. 한바퀴를 굴리면 도장에 새겨놓은 모습이 진흙에 그대로 새겨지죠? 지구가 진흙에 인치듯이 돌아간다는 것은 자전을 의미합니다. 욥이 그런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말 자체를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1절도 보실까요?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은, 오리온좌라고 하는데, 요즘은 잘 못봤습니다마는, 어릴 때에 자다가 한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나와보면 바로 정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일곱 개의 별이 바깥에 네 개, 가운데 세 개 있습니다. 세 별을 가리켜서 삼태성, 혹은 삼성이라고 하는데 그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 별 세 개가 아주 강한 자기장으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낸 건 최근의 일입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저 아무 말 못하고 시험 문제를 듣기만 합니다.

욥이 깨달은 하나님

다 듣고난 욥의 반응이 오늘 읽은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질문을 듣고 있던 욥이 깨달아 안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시다는 말씀은 별로 놀라운 거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계시를 배웠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지 이게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후대, 아주 후대의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벧엘에서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리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디에만 계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곳! 거기에만 계시실 줄 알았죠.

세월이 한참 더 지나가면 요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습니다. 요나가 배타고 반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은 육지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니까 바다로 도망가면 안 계시실 줄 알았죠. 그게 소위 선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요나나 야곱보다 몇 천년 이전 사람이 욥입니다. 그 욥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불능하시오매...’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많이 들었으니까요.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라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질문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하는지 보세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보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 그리고 뜻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질문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려면 나 자신을 열심히 들여다 보아선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물론 다 안다는 건 불가능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자신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욥이 그러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기를 원인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욥도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이다라고 말하는 이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말 속담에 **‘아니 뎡 굴뚝에 연기 나랴’**란 말 있죠? 아궁이에 불을 땠으니까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안 땠는데도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까? 안 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상식을 성경이 곳곳에서 뒤엎어 버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 된 것이 이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런 답은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궁이에 불을 때지 않았음에도 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론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린 겁니다. 잘못이 없어도 욥이 이런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은 아궁이에 불을 안 때고도,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왜 생겼습니까? 정말 욥이 잘못된 것 때문입니까? 욥의 고난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자랑을 해가지고 말이죠... 불경스럽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될 자랑을 괜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이 좀 가벼우신 거죠. 욥의 고난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산 늘려주려고 이 고생을?

처음에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보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자랑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못해서 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더니 욥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이 이런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 보았던 욥의 소유가 42장 끝에 보면 딱 두 배입니다. 1장에 나오는 재산만으로도 욥은 동방의 최고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곱하기 2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갑부일런지는 상상이 잘 안됩니다. 큰 복이지요. 그러나 욥이 받은 복을 거기에만 주목하면 안됩니다.

욥이 받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복에 비하면 별 것 아닙니다. 막말로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늘려주려고 욥에게 그런 고통을 겪게 하셨나요? 5절을 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전에는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너희가 나 알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받

왔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아다'라고 하는 걸 아시죠? 창세기 4장 1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우리말 성경은 뜻을 살려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합니다. 안다라는 말과 동침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는 것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다른 외부 사람이 아무리 안들 부부가 아는 것만큼 알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이런 확실한 앎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충 어설프게 아는 걸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참 유명할 때 아이들이 서태지 서태지 하길래, 제가 심통을 좀 부렸죠. "서태지가 그렇게 좋으냐? 너 서태지 알아?" 그러니까 "예 ~" 하더라고요. "아는 놈 손들어. 그렇게 잘 알거든 너 가서 돈 좀 빌려 올래?" 돈 빌려 올 애는 아무도 없어요. "아주 잘 안다 했잖아?" 애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알긴 잘 아는데 나 혼자 알아요. 자기는 날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걸 가리킵니다. 욥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때는 이런 감각과 기쁨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나니까 세상의 뭐가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에게 물질의 복은 따라 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물질의 복은 따라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하며 즐거운지 모릅니다. 영혼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도 즐거워하며 찬송 부르는 겁니다. 영혼이 만족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욥이 받은 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이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자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리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랑하셔서 일이 이렇게 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사탄이 너무 심한 고난을 주니까 욥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해버리면 어떡하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욥은 이래도 끄떡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욥의 신앙이 그만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어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욥의 수준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큼 멋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친밀한 관계로, 달리 말한다면, 부자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친밀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자녀를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신학교 어느 교수님이 부흥회 오셔서 설교하는 도중에, 신학교 박사요, 신학교 교수이고, 교회가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갔더니 고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가 평평 울더라고요. 그래서 "채 왜 저렇게 우냐?" 그랬더니 도시락 반찬에 소시지를 안 넣어줘서 운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 반찬에 소시지 넣어서 오는데 자기 도시락에는 맨날 김치밖에 없더라. 소시지 넣어달라 했는데 안 넣었다"고 서럽게 울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 교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다른 집 아이들이 그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명색이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이고 목사인데 내 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소시지 때문에 울어?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들이 다 그러는 건 좋다. 그런데 내 딸이 그러는 건 용서가 안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다 그러더라도 우리 집 아이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게 아버지의 욕심입니다.

다른 집 아이는 소시지 때문에 운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있다. 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는 거지요. 아이들이 가끔 집에 와서 엄마 엄마 내 짝지 이번에 반에서 10등했다.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잘했네. 너는? 5등했어요. 야, 5등밖에 못해? 조금만 더해서 1등하면 안되나 그러죠? 옆집 애 10등은 잘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 5등은? 욕심이 참 과합니다. 꼭 1등 해야 합니까? 너무 1등 1등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잘 했다 하십시오.

내 아이만은 좀 남다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전하고 경건한 욥을

보면서 욥에게 더 큰 복을, 너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조금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욥에게 체험시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괜히 사랑해서 가지고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식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요만큼 잘하면 요만큼 상주고 요만큼 잘못하면 요만큼 벌주고 이런 기계적인 것은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부자 관계는 경우에 따라서 잘 했는데도 더 야단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하는데 왜 야단을 칩니까? 더 잘 하라고요. 과도한 욕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기대 때문일 수도 있지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야단맞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욥이 보기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야단 맞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욥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항변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이유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유 없이 왜 때립니까? 그 애가 전학 갈 때가 되어서 “애, 우리 싸움을 끝내야겠다. 내가 이유 없이 썰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냐?” 모르겠네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자. 내가 이유 없이 아무나 때려냐? 너만 때려냐?” 그러니까 “나만 맞았는데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다른 아이들은 놔두고 너만 이유 없이 맞은 이유가 뭐겠냐?” 제가 처음에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더 예쁘기 때문입니다.

“네가 얼마나 예쁜데... 네가 아무리 예뻐도 안아 줄 수도 없고, 선생님이 돼서 너만 표나게 예뻐할 수도 없단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난 네가 예쁘다 싶을 때마다 ‘하 이놈 예쁘다’ 하고 한 대 쥐어 박는 수밖에 내가 할 게 없더라. 그래서 됐다 왜? 그리고 그렇게 맞으니까 아프더냐?” 하니가 아프진 않더라고요. “예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난 한 대씩 쥐어박았을 뿐이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왜 때냐고 대들었다. 내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그러니까 결국 그 애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유 없이 맞을 수 있다 따라 해!”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심하고 볼 때마다 한 대씩 쥐어박았는데, 얼마 안 있어 그만 전학 가버렸어요. 패는 게 아닙니다. 조금 기분 나빴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계속해서 싸웠다는 것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엔 이유가 없었지만 선생님에게는 이유가 있었죠.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예쁘단 말이야. 그런데 ‘야, 너 참 예쁘다’ 하면 다른 애들이 샘내잖아. 그러니까 말 못 하잖아. 그렇다고 몰래 아무도 없는데 따로 불러가지고 ‘예쁘다’ 하니? 그것은 더 이상하잖아. 넌 이유가 없을지라도 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야라는 데야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겼죠. 벌써 시집 갈 때가 훨씬 지났는데 그 이후 소식을 몰라서 조금 섭섭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러냐? 내가 이게 무슨 팔자냐? 내가 전생에 뭘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생 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이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픈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내 자녀 아니냐. 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하고 같아서 되는 거 아니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고 네가 하나님을 특별히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는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당하기 싫

[2002.08.11] 이유도 없이 왜...? (욥기 42:1~17)

은 시련도 당해야 하고 겪지 않아야 할 아픔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